

# 『신쇼호시닛키(信生法師日記)』에 나타난 自照性\*

이 영 경\*\*

---

## 目次

---

1. 머리말
  2. 紀行文學의 自照文學的 要素
    - 1) ‘我’의 表現
    - 2) 旅行動機
    - 3) 自己觀照
  - 3 『신쇼호시닛키』의 自照性
  4. 맺음말
- 

## 1. 머리말

『신쇼호시닛키(信生法師日記)』는 시오야(塩谷)<sup>1)</sup>의 城主이며 가마쿠라 막부의 무사(御家人)인 시오노야 토모나리(塩谷朝業)의 일기이다. 일기 뒤에는 四季, 축문(祝), 연모(戀), 잡가(雜の題詠) 및 고토바카기(詞書)로 이루어진 161首의 노래가 함께 실려 있다. 그 노래들을 일기 부분과 합하여 이른바 『신쇼호시슈(信生法師集)』라고 한다. 말하자면 歌集 『신쇼호시슈』의 전반부가 『신쇼호시닛키』라 불리는 기행문이다. 신쇼(信生)는 가까이 모시던 주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sup>2)</sup>의 一周忌가 지나 출가하였으며, 신쇼란 이름은 시오노야 토모나리의 출가 후의 법명이다. 출가 후 7년이 지나 종교적 修行을 목적으로 신쇼가 교토를 출발하면서부터 『신쇼호시닛키』는 시작한다.

일기에 나타난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마쿠라에 도착한 신쇼는 맨 먼저 주군이었던 사네토모의 어머니 호쿠조 마사코(北

---

\* 위 논문은 2004년도 1학기 교내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양여자대학 부교수 일본고전문학

1) 현재의 도치기(栃木) 현(縣)에 해당하는 시모쓰케(下野)에 위치한 마을.

2)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 가마쿠라 막부 3대 장군(1203-19년)으로서 歌人이다. 요리토모(源賴朝)의 차남이며, 어머니는 호쿠조 마사코(北條政子)이다.

條政子)를 위해 염불을 올린다. 그리고 사네토모의 묘지를 찾아가 그의 來世를 빈다. 계속해서 무사시노(武藏野)와 아사마(淺間)를 거치는 동안 옛 친구인 미쓰무네(伊賀光宗)의 유배지를 방문한다. 이어 다시 가마쿠라를 찾았을 때, 뜻밖에도 마사코의 죽음을 알게 된다. 그 후 고향에 들러 죽은 아내의 13주기임을 알게 되지만 어린 자녀들을 뒤로한 채 그는 다시 수행길에 나선다.

『신쇼호시닛키』는 봄부터 가을에 이르는 극히 짧은 기간에 걸쳐 쓴 여행 일기이다. 또한 여행 목적이 仏道 수행임이 작품 冒頭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서술자는 俗世의 인간적 정을 애써 억제하려는 듯한 애뜻한 심정을 여행하는 동안 곳곳에서 나타낸다. 요컨대 지명을 달리하는 공간 이동과 함께 그 공간의 이동만큼이나 복잡한 內的 심정의 이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사를 보면 이러한 서술자 자신의 내적 심경 변화를 반영한 연구보다는 ‘본문 해석 및 주석 연구’<sup>3)</sup>를 필두로 ‘작가의 계보’<sup>4)</sup>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본 작품을 자조문학 성립기의 한 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와 함께 집필자 신쇼의 생몰년이 자세히 고찰되기도 하였으며,<sup>5)</sup> 다부치(田淵)<sup>6)</sup>씨는 일기와 기행의 틀 안에서 ‘집필 의도와 표현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후 이마제키(今關)<sup>7)</sup>씨에 의해 回想의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지만, 이를테면 자조성에 중점을 둔 자조문학으로서의 해석 시도는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 考는 여기에서 『신쇼호시닛키』를 고찰함에 있어 단순한 기행문적 요소를 넘어, 이른 바 자조문학의 틀 아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단초적 특성들을 살펴 보게 될 것이다. 이때 자조문학의 열쇠개념인 자조성에 주목하여 『신쇼호시닛키』에 나타난 자조 문학적 특징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 2. 紀行文學의 自照文學的 要素

### 1) ‘我’의 表現

일본 고전문학에서 기행문학의 효시는<sup>8)</sup> 엔닌(円仁)의 『닛토구호준레이코키(入唐求法巡

3)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福田秀一『信生法師集』(私家集大成4 中世Ⅲ 明治書院 1975), 外村南都子『信生法師日記』(『中世日記紀行集』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1994) 등이 있다.

4) 長崎健『信生法師伝』- 塩谷正系譜をめぐって-(中央大學文學部紀要, 1972)

5) 祐野隆三『信生法師生沒年考』(『中世自照文芸研究序説』, 和泉書院, 1994), p.104-120

6) 田淵句美子『『信生法師日記』の基盤と表現』(『日記文學研究第Ⅱ集』新典社, 1997), p.181-197

7) 今關敏子『『信生法師集』前半部小考 -日記・紀行としての回想の特質-』(『日記文學研究誌創刊号』, 1999), p.54-63

8) 물론 그 萌芽는 『망요슈(万葉集)』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것은 노래의 한 소재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

礼行記』이다. 이는 漢文体로 쓰여졌으며 求法을 여행 목적으로 하는 만큼 종교적 색채가 강한 여행 기록이다. 이어 점차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가나(假名)문 즉, 한문과 가나가 혼합된 기행문<sup>9)</sup> 형식이 나타나는데 이를 토대로 순수한 가나 기행문인 『도사닛키(土佐日記)』가 등장하게 된다. 말하자면 도사(土佐) 지방의 지방관인 기노 쓰라유키(紀貫之)가 임지에서 5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뱃길을 따라 도읍지로 귀환하는 55일간의 여정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술한 이른바 船中여행기가 예의 『도사닛키』이다.

남자들이나 쓰는 일기를 여자인 내가 쓰려고 한다.

(男もするなる日記といふものを、女もしてみむ、とて、するなり。)10)

쓰라유키는 임지를 떠나 자신의 고향이자 도읍지인 헤이안쿄(平安京)로 귀환하는 50여 일의 여정을 날짜 순으로 묘사하면서 스스로를 여성(女)으로 假託하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으로서의 서술자의 가탁 문제가 실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당시 일기라 하면 남성에게 의한 한문 일기를 의미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남성이 공적 존재로 간주되었던 당대의 상황에서 사적이며 일상적인 일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스스로를 사적 존재인 여성으로 가탁하는 3인칭 형식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당대의 대표적인 일기문학인 『가게로닛키(蜻蛉日記)』, 『이즈미시키부닛키(和泉式部日記)』 및 『사라시나닛키(更級日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술자는 자신을 서술함에 있어 여전히 사람(人)이나 여성(女)과 같은 3인칭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후 비교적 안정된 여류 일기 문학의 융성기를 지나 가마쿠라 막부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조큐의 난(承久の亂)이 발생한 직 후 이삼년이 지나 비로소 기행문학의 성립을 알리는 『가이도키(海道記)』가 쓰여진다. 『가이도키』는 난이 발생한 후 은둔 생활을 하는 遁世者が 신흥도시 가마쿠라를 방문하는 내용이다. 한문 혼독체에 가까운 和漢混淆文으로 『도사닛키』와 마찬가지로 冒頭에서 자신을 ‘와비비토(侘士)’<sup>11)</sup>로 지칭하는 예의 3인칭 형식을 취하고 있다.

시라가와 강 주변, 나카야마 산 기슭에 세상을 피해 쓸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白川の渡り、中山の麓に、閑素幽栖の侘士あり。)12)

그러나 가마쿠라 초기의 과도기를 지나 『신쇼호시닛키』(1225년)에 이르러서는 작가도

행 그 자체가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9)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宮籠御行記』가 있다.

10) 『土佐日記 蜻蛉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新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1989), p.3.

11) わびびと(侘士). ‘외로운, 초라한 사람’이라는 의미.

12) 『中世日記紀行集』(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48, 小學館, 1994) p.14.

여행의 목적도 명확하게 명시되게 된다. 특히 서술자 자신을 묘사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3인칭의 간접 화법 서술이 아닌, 1인칭의 직접 화법 서술을 통해 자신을 묘사한다.

옛날에는 도읍지의 석양의 구름으로부터 멀어져감을 애석해하고, 새벽달을 바라보며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도 많았지만, 지금은 옛 친구는 영락하거나 반 정도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가고 모두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도 절절이 쓸쓸해져 뒤돌아서 멀어져 가는 도읍지의 나무가지를 바라보니 실로 古詩에서 말한 대로 수만 개의 냉이와 다르지 않다.

(昔は、前途を夕の雲の隔つることを恨み、後會を曉の月に憂ふる人も多く、又思ひ置くこともありしを、旧遊零落してなけば泉に返り、己が様々になりければ、我も哀れにて、遠ざかる都の梢を顧みれば、百千万莖の薺に異ならず。)13)

이처럼 『신소호시닛키』에서는 서술자 자신을 당당하게 나(我)로 표현함으로써 서술자의 달라진 위치 혹은 의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신소호시닛키』에만 국한된 형식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행문인 『도칸키코(東關紀行)』14)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장르의 문학 혹은 새로운 글쓰기 방식의 등장은 그 시대가 처한 정치·사회적 변화와 그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요컨대 요리토모(源賴朝)가 가마쿠라에 막부를 열면서 도카이도(東海道)를 정비하자 교토와 가마쿠라 간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더불어 문학에 있어서도 기행문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 방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치 중심지인 가마쿠라와 문화의 중심지인 교토, 즉 公家와 武家の 2중 구조 안에서 사람들의 의식은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가마쿠라 시대가 처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불확실성을 어렵풋이나마 확인하고자 하는 자의식이 자연스럽게 문학 안으로 스며들었을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행이나 일기는 위기의 시대에 스스로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오닌의 난(応仁の亂) 때 일기가 가장 많이 쓰여졌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위기에 직면하여 인간은 스스로의 내면세계에 빠져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외적인 위기의식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다.

## 2) 旅行動機

『도사닛키(土佐日記)』에서 쓰라유키는 5년간의 임기를 마친 뒤 도읍지 헤이안쿄(平安京)로 귀환하는 50여일의 여정을 날짜별로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는

13) 주12)와 같음. p.88. 이하 작품(『신소호시닛키』)의 원문 인용 시에는 그 원문과 페이지만을 명기함.

14) 전편을 통해 서술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여행임을 토로한 채 글을 쓰고 있다.

공적인 한문체보다는 필자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보다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나문을 선택하였다. 여성으로 스스로를 仮託하여 冒頭에서는 여행 동기와 목적을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동시에 말미에서는 맺음말까지도 간과하지 않음으로써 기행문학의 제 형식을 갖추었다.

모년 12월 21일 오후 8시에 출발한다. 그 여행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적어본다.

어떤 사람이 정해진 사오년간의 지방 근무 임기를 마친 후 사무인계 확인서를 받아들고 살았던 관사를 나와 배를 타기로 한 장소로 간다.

(その年の十二月の二十日あまり一日の日の戌の刻に、門出す。そのよし、いさ々かに物に書きつく。

ある人、縣の四年五年はてて、例の事どもみなし終へて、解由など取りて、住む館より出でて、船に乗るべき所へ渡る。)15)

이렇듯 쓰라유키의 일기는 임지에서 도읍지로 귀환하는 상황에서 쓰여진 단순한 사실 기록이다. 하지만 기행문학의 효시로 간주하기에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일기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여행중에 접한 사실들은 하나같이 바로 자신을 반추하는 과정, 즉 자조성을 함축하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이다.<sup>16)</sup> 물론 집필동기와 관련하여 죽은 딸에 대한 상념 등등의 여러 설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행이 끝난 후 5년 동안의 공백 기간에 옛 기억을 떠올리거나 당시 적어두었던 글귀를 참고하는 방식을 통해 5년 전의 여행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여정이 단순한 여행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하여 자신을 향한 끊임 없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가치를 간과할 수 없게 만든다.

다음으로 『가이도키(海道記)』를 살펴보기로 하자.

『가이도키』는 冒頭에서 필자 자신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속에 대한 명예욕이 내면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하고 있었다는 일, 그러나 결국 가난했던 삶으로 인해 出家하여 은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일, 출가하였음에도 현세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집착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이 어느새 초로의 나이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일 등등. 이러한 끊임없는 자신의 履程에 대한 회상 속에서 평소 풍문으로만 듣고 있던 가마쿠라를 여행할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다.

가마쿠라 막부에 힘입어 조정의 정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날로 더해져 천하가 평온하다. 신분의 높낮음의 구별없이 왕래하는 숙소도 많아지고, 나라의 儀式이나 政務는 마치

15) 주10)과 같음.

16) 『도사닛키』의 기행문학으로서의 자리매김은 拙稿「기행문학으로서의『도사닛키(土佐日記)』小考」(한양여자대학 논문집 제26집, 2003년 3월)을 참조. p.167-197

웃감이 짜여지듯 척척 진행된다. 어리석은 나는 그러한 일이 자신하고는 무관하다고 흘러 들어 많은 세월만 지나갔다. 풍문으로만 듣고 말하며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 마음속으로만 가 볼 작정으로 실제로 도카이도(東海道)의 먼 길에는 오르지 못했다. 쓸데없는 공상만 하였을 뿐 실제로 東國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좋은 기회가 생겨 서둘러 혼자서 먼 여행길을 나설 결심을 하였다.

(この故に、一朝の春の梢は、東風にあふがれて恵をまし、四海の湖の音は、東日に照らされて波を澄ませり。貴賤臣妾の往還する多くの驛の道、隣をしめ、朝儀國務の理亂は、万緒の機、かたがたに織りなす。羊質、耳の外に聞きを成して、多歳をわたれり。舌の端に言ふをして、幾日をか送るや。心船いつりの爲に漕ぐ、いまだ海道万里の波に棹ささず。意馬あらましにはす、關山千程の雲に鞭うたず。今、すなわち、芳縁に乗じて、俄に、獨身の遠行を企つ。)17)

『가이도키』 작가는 가난한 삶으로 인하여 입신출세의 어려움을 깨닫고 출가하여 이제 초로의 나이에 이르렀다. 도카이도(東海道) 여행을 항상 동경하면서도 직접 가서 확인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여행할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여행은 ‘어떠한 특별한 인연(芳縁に乗じて)’, 즉 자의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우연의 결과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그 뒤에 오는 ‘갑자기(俄に)’라는 어휘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큰 바위 속으로는 괴로운 일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마땅히 숨을 만한 산도 없기에, 定住할 땅과 마음을 정하지 못한채 뭇가에 마음이 이끌리어, 東國에로의 수행을 위해 1225년 봄 2월 10일경에 도읍지를 나선다.

(憂きこと訪ね來ぬ巖の中もなく、いづくも山梨の花なれば、思ひ定むべき所もあるべからずと、あくがるる心に誘はれて、東のかた修行のため、元仁二年の春二月の十日頃、京を出づ。<p.88>).

일본 고전 기행작가의 여행 동기는 실로 작가에 따라 다양하지만, 그 기행이 어떤 동기가든지 노래나 노래의 전통에 대한 관심, 즉 우타마쿠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비록 무사이었지만 신쇼는 남달리 노래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18) 때문에 다른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그가 명승지에서의 전통적 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7) 주12와 같음. p.17.

18) 가마쿠라 막부의 3대 장군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는 정치나 무예보다는 노래(和歌)·축국(蹴鞠)을 더 좋아하였으며 교토를 동경하는 풍류가였다. 따라서 무사나 승려들에게 노래의 정진을 장려하였으며, 사네토모의 총신이었던 신쇼와 노래를 비롯한 미야비(雅,みやび)를 매체로 하여 많은 교류가 있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쇼는 우선 자신의 여행의 목적이 동국에로의 수행, 즉 종교적인 목적에 있음을 표면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내면세계에 좀 더 귀를 기울여보면, 이내 그의 여행에는 또 다른 상황이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뭔가에 마음이 끌리어(あくがるる心に誘はれて)’<sup>19)</sup>라는 부분에서 신쇼의 내면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던 은밀한 감정이 토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딘가 틈새로 인해 채워지지 않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메우기 위하여 여행길에 나서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자의적인 심적 변화에 따른 여행이다. 신쇼에게 있어 뭔가 모르지만 그와 같은 불안한 심적 상태는 아마 일본 사상사의 흐름에 있어 소위 말하는 ‘표박’의 이미지<sup>20)</sup>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3) 自己觀照

헤이안(平安) 시대의 모노가타리(物語) 문학은 일기문학과 함께 후궁이나 살롱 등의 閨房문학으로서 문학의 일면을 대표하는 것이었지만 그러한 계통의 일기 문학은 중세에 들어와 중세라고 하는 색채가 다소 반영되어 새로운 문학형식을 만들어 내었다. 특히 가마쿠라 시대가 함축하고 있는 과도기적 시대 상황은 자기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일기·수필·기행문학의 창작을 촉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가마쿠라 초기의 일기문학은 가까이 있는 자의 죽음을 계기로 창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세의 일기와 기행문학은 가까이 있는 자의 죽음, 즉 <생의 불안>을 계기로 하여 창작되었다. 예를 들면 가마쿠라 전기의 『겐슌몽인노츄나곤넛키(建春門院中納言日記)』에서는 자신이 모시던 왕녀(姫宮)의 요절을 추모하는 글이 일기를 쓰는 동기로 이어지며, 『겐레몽인노우쿄노다이부노슈(建礼門院右京大夫集)』의 애절한 일기 역시 다이랴쨌(平氏)의 몰락이 계기가 되어 쓰여진 작품들이다. 이에 앞서 헤이안 시대의 『다카쿠라인이쓰쿠시마고코노키(高倉院嚴島御幸記)』도 다카쿠라(高倉院)의 붕괴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쓰여졌다.<sup>21)</sup> 또한 동시대의 기행문인 『가이도키』에서도 필자는 조큐의 난(承久の亂)에 연류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역사의 희생자들의 유적을 돌아보게 된다. 그는 거기에서 인생무상과 회자정리의 보편적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 즉, 죽음을 상기시키는 장소는 현세에서의 자신의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실존의 허상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 잊고 지내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sup>22)</sup>. 때문에 여행을 통해 접하게 된 역사적 인물들의 죽음은 망각 속에 갇혀 지내던 혹은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는 자기관조에 이르는 길목이라 할 수 있다.

19) “あくがる”란, 어떤 장소를 떠나는 의미이기도 하며, 몸에서 분리된 혼(魂)이 허공을 헤메이거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20) 目崎徳衛『漂泊-日本思想史の底流-』(角川選書78, 角川書店, 1969, p.23)

21) 福田秀一「第3章 日記・紀行・隨筆」(有吉保編『中世文學史』, 有斐閣, 1978) p.60-4

22) 拙稿「『가이도키(海道記)』에 나타난 自照性 연구」(『日語日文學研究』제48집, 2004) p.45-54

신쇼는 『도사닛키』와 『가이도키』에서처럼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추체험 방식이 아니라 - 모시던 주군의 죽음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출가를 결행하였다. 『신쇼호시닛키』에서의 신쇼의 여행 또한 주군 사네토모의 암살로부터 7년, 신쇼 출가로부터 6년, 아내 죽음의 13주기, 그리고 조큐의 난(承久の亂)으로부터 4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가마쿠라 막부의 개막은 호쿠조(北條)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배제하고 섬멸한 죽음의 역사였다.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서부터 출가, 여행에 이르기까지 죽음은 늘상 가마쿠라 시대의 현실이었으며 특히 가정적으로도 죽음을 가까이 했던 신쇼의 자기 관조로 이어지는 절절한 현실 인식은 冒頭の ‘우려할 일(憂きこと)’ 많은 세상이라는 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sup>23)</sup>

여행에 있어 신쇼의 가장 긴 체류지였던 가마쿠라에서는 표면적으로 사네토모의 모친 마사코(政子)를 위한 염불을, 그 이면에서는 주군이었던 사네토모를 향한 통절한 추모의 마음이 역력하다. 이처럼 그의 여름 여정에서는 사네토모의 7주기 공양과 마주하였고, 이어 가을 여정에서는 마사코의 갑작스런 죽음과 맞닥트리며, 마지막 행선지인 고향에서는 죽은 아내의 13주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듯 신쇼는 자신의 직접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언제나 여행 중에 죽음을 체험하게 되기에 어느 의미에서는 죽음을 동반하는 여행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떨쳐버릴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는 세월의 흐름 속에 묻혀 지내던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자기관조의 주요한 동인으로 발전하게 된다.

젠코지에서 동행의 수행자에게 5월 5일(창포 뿌리와 노래틀) 보낸다.

<생각해보셨습니까.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검게 물들은 이 소매에 늘 속의 창포 뿌리를 달아매리라고는>

답가,

<오래 살은 탓에 올해도 창포를 꺾었습니다. 중 소매에 창포 뿌리를 달을 때까지 살아있는 이 목숨이 원망스럽소이다>

(善光寺にて同行の許へ、五月五日遣はし侍る。

思ひきや袖もあやめと引き替へて世をうき沼の根を掛けんとは  
返し、

ながらへてまたも生けけりあやめ草うき根に廻る命恨めし p.99)

만년에 시작된 신쇼의 여행길은 변화와 죽음으로 점철된 세월의 흐름 속에서 현실 인식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뒤돌아보게 만들고 인식하게 하였다. 위의 인용문의 일례를 보더라도 뽑아든 창포뿌리를 보며 창포의 긴 뿌리보다 길게 살아있는 자신

23) 藤本徳明 「信生法師日記 -歌僧の東國下向-」(『國文學解釋と鑑賞』, 1998) p.72



의 질긴 목숨을 비교하게 된다. 주군, 친구, 아내 등등 측근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이미 이승의 사람들이 아닌데 자신만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다소 원망스러움이 내포된 대목이다. 그러나 겐코지 이후의 여행을 보면 이는 신쇼의 단순한 원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이 동란의 세계에 극적인 삶을 살아온 신쇼 자신을 깊게 관조하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도사닛키』와 『가이도키』, 그리고 『신쇼호시닛키』를 비교하며 서술자로 하여금 그동안 잊고 지내던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드는 주요한 동인들을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제 그와같은 단초들이 마찬가지로 죽음과 자기성찰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 본 작품에서는 어떻게 서술자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자조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3. 『신쇼호시닛키』의 自照性

일기·기행·수필 문학을 총칭하여 일반적으로 자조문학이라 한다. 자조문학은 쇼와(昭和) 초기 서정시와 대립하는 일기나 기행이 자기 내면을 반성·返照<sup>24)</sup>하는 것이라라는 주장은 이케다(池田)씨가 논한 이후로 거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후 사네가타 씨는 일본문예를 大別하여 서정문예·서사문예·극문예·자조문예의 네 범주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일기나 수필 혹은 기행문예를 자조문학 체계의 범주 안에서의 생각할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바로 자조성<sup>25)</sup>에서 찾았다. 그 후 이마제키 씨는 自照란 막연한 개념으로 써 어떤 문학도 작자의 內省, 관조, 인간관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없다<sup>26)</sup>는 반론을 제기 하였으나 자조문학에서 자조성의 여부는 문학성의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경우, 자조란 그저 막연한 개념은 아니다. 물론 문학 작품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장르의 작품이든지 이미 그 자체로 자조성을 내포하지 않는 문학 장르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여기 자조문학에서의 자조성은 이른 바 그 작품을 구성하는 실질적인 축이라 할 수 있다. 自照는 self-reflection의 譯語로 이들 장르의 작품은 작가 자신의 생활·체험이나 사상·감정을 직접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자가 자기를 성찰하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거울에 비친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27)</sup>

종교적 수행외에 다른 특별한 목적 없이 여행길에 오른 신쇼는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

24) 池田龜鑑 「日記紀行文學の本質」(『國語と國文學』 1927)

25) 實方 清 『日本文藝の体系』(櫻楓社, 1985) p.13-20

26) 今關敏子 「『自照文學』としての『日記文學』」(『中世日記文學論考』和泉書院, 1987)

27) 有吉保 編 『中世文學史』(有斐閣, 1978) p.60

면서 옛 친구들의 죽음을 떠올리지만,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교토를 뒤로 한다. 하지만 오사카(逢坂)의 관문을 지나면서 예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변해버린 가가미야마(鏡山)를 넘을 때 비로소 신쇼는 자신의 늙어버린 모습을 자각하기에 이른다.

가가미야마(鏡山)을 넘으면서 여기저기 옛날과 달라진 모습을 보니, 예전에 살았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서글퍼지고 늙은 내 나이도 뼈저리게 생각되어,

(鏡山を越ゆとて、昔見しに変わる所々のありさまを、先のようにがまでも哀れにて、老いにける年の程も思ひ知られて、p.88)

동일한 대상을 보면서도 예전 같으면 아마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를 가가미야마의 변화조차도 이제는 새롭게 인지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강한 반추의 힘으로 다가온다. 달라진 자연과 주위의 모습을 통해 잊고 지내던 자신의 나이, 즉 노쇠한 자신의 모습을 절감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여행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행 당사자에게는 이미 그 자체로 새로움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또한 잊고 지내던 자신의 존재에 불현듯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만드는 자기 성찰의 길이다. 요컨대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미 서술자는 변해버린 자연을 마주하면서 그간 잊고 지내던 자신을 향한 새로운 사색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현세에 대한 영겁의 인연의 끈을 놓아버린 지 이미 오래건만, 그는 어느덧 그 과거의 끈 주위를 서성이며 새롭게 다가오는 쓸쓸함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자신을 향한 뒤돌아봄은 여행중 지명을 달리할때마다 점점 더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리하여 중국에는 여행을 통해 서술자로 하여금 잊고 지내던 자신을 향한 새로운 깨달음의 場으로 이어진다.

이전같으면 미야지야마(宮路山)를 지나면서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출가하여 옛날과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웬지 쓸쓸하고, 특히 송풍이 몸에 스미어,

(宮地山を過ぐとて、前に越えしには何とも思はざりしを、この度は昔に引き替へたる身のありさまにつけても、何となく物さびしく、松風もことに見にしみ侍れば、p.91)

<생각나셨습니까. 변하지 않는 달조차도 희미하여 또렷이 보이지 않는 봄의 밤하늘, (더군다나 나는 출가하여 모습이 바뀐 몸) 잊혀져도 어쩔 수 없네>

(思ひ出づや姿変らぬ月だにもおぼろにかすむ春の夜のそら p.91)

이케다(池田)의 숙소에서, 옛날에 허물없이 지내던 지쥬(侍従)라는 유녀가 있는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를)알아보지 못하고 방을 내주지 않아 전하였다.

<연못이나 논 물조차도 내 그림자를 비춰주지않듯 옛날에 보던 모습이 아니어서인지

방을 내주지 않는구나>

(池田の宿にて、昔申し慣れたりし、侍従といふ君の許に、宿を借り侍るに、見知らぬさまにて、宿を貸しげにもなければ、いひ入れ侍りけ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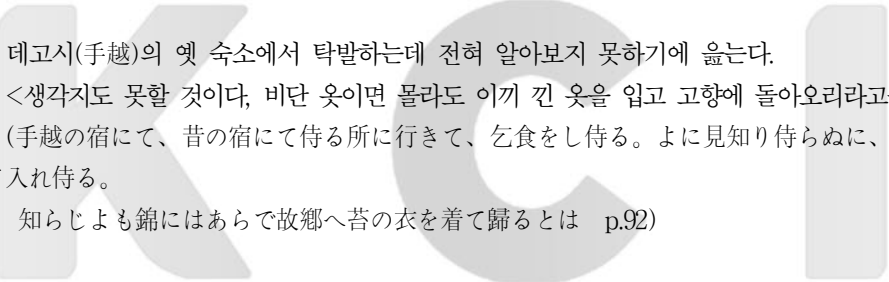
昔見し姿にもあらずなりぬれば池田の水も影をやどさず pp.91-2)

우쓰노야마(宇津山)를 넘을 때, 길가의 나무 팻말에 “옛날에는 花鳥의 풍류를 읊조리며 말 채찍을 가하며 넘었다. 지금은 허술한 거적문(암자)을 나와 중이 되어 지나노라”라고 써놓고 읊은 노래,

<일찍이 생각이나 했는가, 현실에서도 꿈에서도 우쓰노야마를 이렇게 다시 넘으리라고는>

(宇津の山を越ゆとて、路のほとりなる木に札を打ち侍りしに、「昔は花鳥の情にうそぶきて、馬に鞭打ち越えき。今は相霜のとほそを出でて、僧に伴つて過ぐ」と書き付け侍りて、

思ひきや宇津の山辺の現にも夢にもかくてまた越えんとは p.92)



테고시(手越)의 옛 숙소에서 탁발하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기에 읊는다.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비단 옷이면 몰라도 이끼 낀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오리라고는>  
(手越の宿にて、昔の宿にて侍る所に行きて、乞食をし侍る。よに見知り侍らぬに、讀みて入れ侍る。

知らじよも錦にはあらで故郷へ苔の衣を着て歸るとは p.92)

비 내린 후, 달이 처음으로 밝게 비추는 밤에 숙소에서 적는다.

<달도 봄도 그대로인데 나만이 옛날과 다른 출가의 몸으로 그 때를 생각하니 소매를 적시는구나>

(雨の後、月初めて晴れ侍る夜、宿に書き付け侍る。

月かげも春も昔の春ながらもとの身ならで濡るる袖かな p.94)

호리카네(堀兼)의 우물은 옛날과 다름 없는데 나만 달라져 서글피져,

<옛날을 생각나게 하는 호리카네의 우물을 보니, 옛 생각으로 이전보다 소매에 눈물이 더 젖는구나>

(堀兼の井を見侍るに、昔にも変らぬなり。我が身ばかりあらずなりにたることも哀れにて、

昔のみ堀兼の井の思ひ出でてもと見しよりも濡るる袖かな pp.96-7)

위의 몇 구절의 인용문에서 자세히 살펴 보았듯이 여행은 이렇듯 늙어버린 자신, 옛날과는 다른 출가한 모습, 타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 世人들에게 잊혀진 자신, 변

하지 않는 자연과 자신과의 비교, 과거의 회상 등등 신쇼 스스로를 철저하게 뒤돌아 보게 만드는 자기성찰의 여행이었다.

주군 사네토모 암살 1년 후 세상을 피해 인생을 조용히 보내기 위해 출가하여 어느덧 7년이 지났지만, 신쇼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정신적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그는 옛날과는 다른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자신에 대한 반조와 자기 성찰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깊은懷疑에서 시작한다. 그러기에 회기가 깊을수록 스스로를 뒤돌아보는 자조성 또한 그만큼 강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을 믿으면서 탐욕의 죄업을 쌓고 살아가는 오노(小野)의 숙소의 유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자기 회의는 나타난다.

신쇼의 인생 여정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음 혹은 죽음의 그림자는 늘 그와 함께 하고 있다. 1213년 부인의 죽음, 그 후 6년이 지난 1219년의 사네토모의 암살, 그리고 여행 중에 친구 미쓰무네가 있는 유배지의 방문과 마사코의 돌연한 죽음, 사네토모의 내세를 비는 염불, 고향에서의 아내의 13주기 등등이 그를 둘러싼 죽음의 형상들이다. 그런 만큼 죽음은 그로하여금, 어쩌면 죽음이라는 말 속에 함축하고 있는 통상적인 의미가 그러하듯이, 깊은 자기성찰에 이르는 가장 강한 동인인 것이다.

가마쿠라에 이르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뒤돌아 볼 수밖에 없었던 신쇼는 가마쿠라에 도착하자 마사코를 위한 염불을 올린다. 봄비를 맞으며 꽃봉우리를 터트리며 꽃 앞에서 그는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소매에 눈물을 적시기도 한다. 꽃피우기를 재촉하는 듯한 봄비내리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정경을 접하여 생명과 환희와 같은 미래의 희망보다는 자신의 지나온 날에 대한 회상을 통해 과거에 얽혀있는 슬픔을 생각하기에 이른다.

2월 29일 가마쿠라에 도착하여 3월 4일부터 마사코(政子)마미를 위한 염불을 드리는데 저녁무렵 고요하게 봄비가 내린다. 홀로 만족해하는 듯 일면에 봉우리를 터트리며 꽃을 보면서 나는 지난날들이 저절로 생각나 소매에 눈물 방울이 멈추지 않는구나.

(二月二十九日鎌倉に着きて、三月四日より二位殿の御持仏堂乞ひ受けて、別時の念仏するほどに、春雨のどかなる夕暮に、紐解き渡す花の顔、己れ一人と笑み廣げて、思ふことなげなるにも、過ぎにし方思ひ出でられて、袖の雫も偏になりぬ。p.94)

이어 사네토모의 묘를 찾아가게 되는데, 떠 있는 달과 불어오는 송풍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과거에로의 사색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다. 그는 사네토모 없이 지낸 7년을 꿈과 같은 세월이라 생각하면서 차마 그 슬픔을 말로 대신하지 못한다. 거기에서 신쇼는 万事生滅이라는 道理를 생각하여 애석해하거나 슬퍼해야 할 일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체념하려 하지만 옛날과 전혀 변함이 없는 새벽 하늘을 보며 다시 변하지 않는 자연의 무정함을 원망하고 만다. 그는 이어 은거중인 사네토모 가신의 한명이자 친구이었던 미쓰무네를

찾아간다. 그러나 역시 중이 되어버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죽지도 못하고 있다는 친구의 말에 듣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된다. 다음으로 병중의 마사코를 문안하려고 방문했는데, 이미 타계하였다는 소식을 접한다. 신소는 또 한번 한편으로는 자신의 질긴 목숨을 원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나 부처에게 탄원해도 소용없이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닫는다.

사람이 많은 곳에 있던들 산에 은거한들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저승길이기엔 신에게 빌고 부처에게 탄원해본들 소용없는 일이다. 창 끝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방패 맨 앞에서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많은 병사들이 있었지만, 죽음이라는 적은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덧없는 亡骸를 보내고 후지산 높은 봉우리의 구름으로부터 (화장터)연기를 확인 한 일이 이제 정말 슬프게 생각되는구나.

<이위전에 늦지 않을 거라며 제 각각 소리질러도 소용없는 일이며, 혼자서 저승 산길을 넘어가야겠지>

(市に交はり、山に隠れても、終に逃れざりける道なれば、神に祈り、仏に憂ふるも、甲斐なし。中にも、矛の先を退かず、盾の面に身を捨てむと、顧みざる武士の類ひ、その數仕へ奉れども、無常の敵をば靡かさざりける慣らひなれば、空しき屍をのみ送り奉りて、富士の高嶺の雲と見なし奉りしことこそ、哀れに悲しく侍りしか。

後れじと各々嘆きし甲斐もなし一人や死出の山路越ゆらん p.100)

이렇듯 전혀 예견하지 못한 마사코의 죽음은 신소로 하여금 현재 그 자신이 처한 상황 - 출가하였지만 성불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 - 을 다시 확인하게 만들어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한다. 지인들의 죽음을 둘러싼 암울한 분위기와 어느덧 변해버린 자연환경에서 기인하던 속세의 잡념은 가을 길목의 패랭이꽃과 싸리나무꽃을 바라보며 어느덧 체념으로 바뀌어 간다. 고향에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고, 때는 마침 죽은 아내의 13주기의 날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잃은 5자녀 중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어린 두 자녀와 마주하여 아버지로서 끌리는 정에 일말의 갈등을 느끼면서도 결국 체념한 채 떠난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승에서 다시 만날 리 없다고 생각하여도 역시 마음이 흔들리기 에, “三界中를 流轉하면 정을 끊을 수 없으며 불도입문이야말로 진실로 恩愛에 보답하는 길 이다”라는 이치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되내어본다. 피할 수 없는 死別이 있는 법이다. 옛날에 다 끊어버려 恩愛의 고리도 남아있지 않기에 다시 마음을 다져먹고 떠날 각오를 하였다.

(この度を限りにて、今はこの世にて又相見ることあるまじきぞかしと思ひ侍るにも、さすが心弱くは侍れども、「流轉三界中」の理りを忘るべきにもあらず。さらぬ別れもあるぞ、果てし恩愛の絆もあらねば、猶心強きさまに思ひなり侍りぬる。 p.103)

『신쇼호시닛키』의 집필 동기가 비록 가단(歌壇, 宇都宮)에 대한 지지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행하는 동안 다양한 형상으로 다가오는 죽음으로 비롯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은 여행자, 즉 서술자로 하여금 변화하는 내면의 의식의 흐름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 즉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깊은 회의를 통한 존재에 대한 무상감 등등이 그로 하여금 생자필멸이라는 보편적 인식과 더불어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각성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여행이거나 시인이나 예술가처럼 보다 높은 자기 형성을 위한 여행에서는 여행으로서의 순수한 깊이와 향기가 묻어난다. 그러나 일본의 고전 기행 문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오히려 정치·종교적 이유에 기인하든지 혹은 극히 개인을 위한 여행이 대부분이다. 신쇼의 경우도 정치적인 이유로 출가하였고 종교적인 이유에서 가마쿠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여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여행이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외부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의 초점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행문의 효시인 『도사닛키』는 50여일 남짓한 뱃길여행에서 많은 지역과 경치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치에 대한 묘사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기행문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경성 즉 자연 관조의 이런 경향은 『신쇼호시닛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쇼 역시 이 일기에서 실제로 스쳐가는 자연 정취를 자신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기 보다는 우타마쿠라(歌枕)의 명승지에서 관념적인 연상을 노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4. 맺음말

일기·수필·기행 등의 소위 자조문학 가운데 공간적 이동을 동반하는 기행문학은 특히 가마쿠라 시대부터 많이 쓰여졌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전 시대의 공적인 용무의 여행이나 모노모데(物詣)의 여행외에도 이제 다양한 여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가마쿠라 막부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정치의 중심축이 된 가마쿠라와 문화를 상징하는 교토의 두 중심지를 오가는 여행이 빈번해졌으며, 여기에 또한 많은 둔세자의 배출과 많은 전란 등이 여행과 기행문학을 발생시킨 주요한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기나 기행은 위기의 시대에 정신적 극복을 위해 많이 쓰여졌다. 외적인 불안감을 극복하고 내면의 자신 속을 들여다봄으로써 스스로 안정을 찾아 위기감을 극복하려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신쇼호시닛키』의 집필자 신쇼 역시 주군의 죽음으로 인하여 출가를 결행하였고, 여행하는 동안에도 죽음은 자기 자신을 관조할 수 있게 만든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신쇼는 그러한 동기에 촉발받아 공간적 이동과 함께 철저하게 자신과 마주하여

자신을 반조하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였으며 인간의 보편적 진리에 접근하려 하였다. 자조성의 여부가 일기·수필·기행 등의 자조문학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라면 이 신쇼의 일기야말로 작자 자신의 감정을 직접 소재로 하여 마치 자신의 마음을 거울에 비친 것 같이 자신을 관조하고 있다.

중세라는 시대가 안(內)으로 향해 모든 존재를 응시하는 경향, 즉 外發的이 아닌 內觀的인 곳에 그 특징이 있다면 『신쇼호시닛키』야말로 작가 신쇼의 심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 자조문학을 특징짓는 풍부한 자조성을 내포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 【參考文獻】

- 이영경(2004)『『가이도키(海道記)』에 나타난 自照性 연구』, 『日語日文學研究』 제48집. p.45-54
- 이영경(2003)『기행문학으로서의 『도사닛키(土佐日記)』小考』, 『한양여자대학논문집』 제26집. p.167-197
- 有吉保 編(1978)『中世文學史』, 有斐閣. p.60
- 池田龜鑑(1927)『日記紀行文學の本質』. 『國語と國文學』
- 今關敏子(1999)『『信生法師集』前半割小考-日記・紀行としての回想の特質-』, 『日記文學研究誌創刊号』. p.54-63
- 今關敏子(1987)『『自照文學』としての『日記文學』』, 『中世日記文學論考』, 和泉書院.
- 實方 清(1985)『日本文芸の体系』櫻楓社. p.13-20
- 祐野隆三(1994)『信生法師生沒年考』, 『中世自照文芸研究序說』, 和泉書院. p.104-120
- 田淵句美子(1997)『『信生法師日記』의 基盤と表現』, 『日記文學研究第Ⅱ集』, 新典社. p.181-197
- 『土佐日記 蜻蛉日記 紫式部日記 更級日記』(1989) 新日本古典文學大系, 岩波書店. p.3
- 外村南都子校主·譯(1994)『中世日記紀行集』,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p.85-104
- 目崎德衛(1969)『漂泊-日本思想史の底流-』, 角川選書78, 角川書店. p.23
- 長崎健(1972)『信生法師伝』-塩谷正系譜をめぐって-, 中央大學文學部紀要
- 福田秀一(1975)『信生法師集』, 私家集大成4 中世Ⅲ, 明治書院.
- 福田秀一(1978)『第3章 日記・紀行・隨筆』, 『中世文學史』, 有斐閣. p.60-4
- 藤本徳明(1998)『信生法師日記 -歌僧の東國下向-』, 『國文學解釋と鑑賞』. p.7

## 要 旨

従來の『信生法師日記』の研究は、敘述者自信の内的心境の変化を反映する研究よりも本文解釋及び注釋研究を先驅けに信生の系譜や生没年、そして執筆意図と表現研究、回想の要素などにその重点が置かれている。が、自照性を中心とする自照文學としての試みはほとんど行われていないのが事實である。

本稿は、この日記が單なる紀行文的な要素を超え、自照文學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端的な特徴を主に自照性を中心に考察した。

その結果、『信生法師日記』は敘述者本人を'女'に仮託したり三人称ではなく、堂々と'我'と表現することによって敘述者の意識変化を表れた。また、冒頭の旅行動機を見ると明らかであるが、信生は修行即ち、宗教的な目的をもって旅立ったのである。しかも、その奥には満たされない不安定な精神状態から觸發された旅行であったことも読み取れた。特に、一生信生に取り巻いて切り放せなかったことは死であった。そしてその死は、老いてしまった自分、昔とは変わった出家の姿、他人が自分を見分けられないこと、世人に忘れられた自分、変わらぬ自然と自分との比較、過去の回想など自分を振り返らせる主な原因へと發展していった。信生はこの旅行を通して徹底的に自分と向かい合い自分を照らし、自己省察または自己反照した。日記・紀行・隨筆などのいわゆる自照文學を特徴づける一番主要素として自照性が挙げられる場合、信生のこの日記こそ作者自分の感情を直接素材として取らえて自己を省察し、振り返り、まるで自分の心を鏡に照らしたように描いた自照性の豊かな作品である。

『信生法師日記』は春から秋にかけてごく短い期間の旅旅行日記であるが、地名を異にする空間移動と共にその空間の移動ほど複雑な内的心情の移動を如實に示す事によって自照文學としての十分な條件を備え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

キーワード : 信生, 『信生法師日記』, 我の表現, 旅行動機, 死, 自己觀照, 自照性,

투 고 : 2004. 11. 30

1차 심사 : 2004. 12. 11

2차 심사 : 2005. 1. 4

住 所 : (133-794)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여자대학 일어통역과

電 話 : (02)2290-2448, 011-9193-7988

e-mail : waiwai@hywoman.ac.kr